수시 22만7천명 뽑는다

194개 대학 정원의 59%…광주·전남 1만6천915명

내달 9일부터 접수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2010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에서 전국 194개 대학이 총 22만7천여명의 신입생을 선발한다. 이는 올해 전체 모집인원(38만4천659명)의 59%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시모집 인원보다 훨씬 많은 수치다. 광주·전남지역 대학에선 전남대(광주·여수 캠퍼스) 2천 638명 등 18개 대학에서 1만6천915명을 수시전형으로 모집한다.〈관련기사 13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일 전국 4년제 대학의 2010학년도 수시 모집요강 주요사항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올해 수시모집을 실시하는 대학 및 모집인원은 194개 대학, 총 22만7천92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4개교, 2만869명이 늘었다.

전형별로는 일반전형 모집인원이 160개 대학 11만4천556명(50.4%), 특별전형이 185개 대학 11만2천536명(49.6%)이다.

특별전형 중에서는 특기자전형으로 119개 대학이 7천162명, 대학독자적기준전형으로 182개 대학 7만4천962명, 취업자전형으로 17개 대학이 459명을 선발한다.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는 농어촌학생전형으로 137개 대학이 9천231명, 전문계고교출신자전형이 128개 대학 1만115명, 특수교육대상자전형 47개 대학 882명, 기회균형선발전형으로 96개 대학이 2천934명을 뽑는다.

특히 입학사정관제를 활용하는 대학이 지난해 40개 대학에서 올해 87개 대학으로 늘고, 선발인원도 지난해 4천555명에서 2만2천787명으로 5배 가까이 불어났다.

주요 전형 요소는 학교생활기록부와 논술, 면접 등이며 학생부는 고교 3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이 반영된다. 논술고사는 서울대, 이화여대, 인하대 등 37개교에서 실시한다.

원서접수 및 전형기간은 대학별로 다음달 9일부터 12월8일까지고 합격자 발표는 12월13일까지, 등록기간은 12월14~16일이다. 같은 대학이라 하더라도 전형유형과 모집단위에 따라 원서접수 및 전형 일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대학별 모집요강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여러 대학에 복수로 합격했을 땐 등록기간에 반드시 1개 대학에만 등록해야 하며, 등록 예치금을 납부한 것도 정식 등록으로 처리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2010학년도 수시 모집요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교협 대학진학정보센터(univ.kcue.or.kr) 또는 대학별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20일 광주시의사회 소속 의사들이 광주역에서 탑승객들에게 신종플루 예방법 등을 설명하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광주·전남 신종플루 확산

확진 44명…매일 수백명 검사 행렬

광주·전남지역 신종플루 확진 환자가 40명을 넘어섰다.

20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5일 국내에서 첫 신종플루 사망자가 발생한 뒤 광주·전남에선 각각 6명과 3명이 새롭게 신종플루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 중이다.

광주지역 신종플루 환자 중에는 제주도를 다녀온 세무공무원, 국외여행 경험이 없는 중학생, 휴가를 나온 군인 등이 포함돼 있으며, 모두 국내 또는 지역 내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남도에서도 첫 사망자 발생 이후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8명이 의심환자로 분류돼 확진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에서 발생한 신종플루 환자는 각각 8명, 36명으로 늘어났다.

신종플루 감염이 확산되면서 광주지역에서는 매일 수백명이 검사를 위해 보건소를 찾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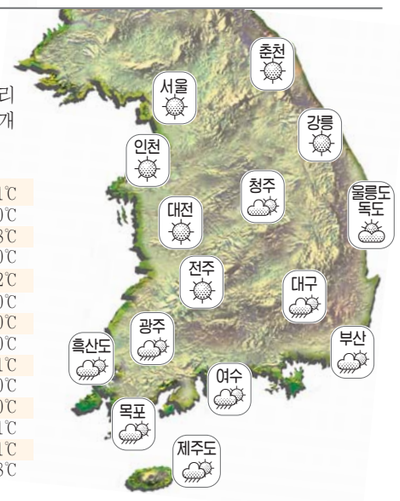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5시 56분 해짐 19시 14분 달뜸 06시 38분 달짐 19시 33분

눈물 같은 빗물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흐리고 오전에 비가 온 뒤 점차 개겠다.

광 주	비 온 뒤 갬	24/31℃
목 포	비 온 뒤 갬	27/30℃
여 수	비 온 뒤 갬	24/28℃
완 도	비 온 뒤 갬	24/30℃
구 례	비 온 뒤 갬	23/32℃
해 남	비 온 뒤 갬	24/30℃
장 흥	비 온 뒤 갬	24/30℃
고 흥	비 온 뒤 갬	24/30℃
순 천	비 온 뒤 갬	24/31℃
영 광	비 온 뒤 갬	23/30℃
진 도	비 온 뒤 갬	24/30℃
전 주	맑 음	23/31℃
남 원	비 온 뒤 갬	23/31℃
흑산도	비 온 뒤 갬	22/28℃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서~북서	0.5~0.5m
먼바다	서~북서	0.5~1.5m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서	0.5~1.5m
먼바다	남서~서	1.0~2.0m

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불쾌지수
높음	경고	높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서~북서	0.5~0.5m
먼바다	서~북서	0.5~1.5m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0.5~1.0m
먼바다	서~북서	1.0~1.5m

	밀물	썰물
목포	02:42 14:51	07:56 20:04
여수	09:35 21:58	03:24 15:34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22(토)	23(일)	24(월)	25(화)	26(수)	27(목)
날 씨						
최저/최고	23/31	23/30	22/31	22/31	22/30	22/29

주암호·동복호 '녹조' 비상

조류경보 기준치 넘어서

장마에 이어 폭염이 지속되면서 광주·전남 식수원인 주암호와 동복호에 엽록소(클로로필-a)와 남조류 등 조류가 발생, 식수원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따라 이르면 21일 동복호와 주암호에 조류경보 등 특보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주암댐관리단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동복호 수질을 측정한 결과 녹조의 원인인 클로로필-a의 농도가 ㎥당 29.8㎎, 남조류 세포수는 ㎖당 1만8천760개로 나타났다. 주암호(11일 기준)는 클로로필-a의 농도가 ㎥당 29.0㎎, 남조류 세포수는 ㎖당 1만2천600개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치는 조류 주의보 발령 기준치는 물론 조류경보 발령 기준치(클로로필-a 농도 25㎎/㎥, 남조류 5천개/㎖)를 뛰어 넘는 수준이다.

지난 19일 이뤄진 주암호와 동복호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도 조류특보 발령기준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21일 오전 수질검사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며 "공식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으나, 현재로선 동복호와 주암호에는 조류특보가 발령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조류 특보는 2차례 연속 수질 검사에서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발령된다.

한편 한국수자원공사 등은 지난 10일부터 주암호, 동복호 일부 수역에 조류가 발생하자 녹조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취해왔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증심사지구 노후식당 강제철거 '제동'

법원, 광주시 항고 기각

광주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방극성)는 20일 신모(55)씨 등 증심사 인근 상인과 주민 16명이 광주시를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항고심에서 시의 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시가 이 일대 식당과 주택 등을 철거하려고 한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은 효력이 정지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시의 계고처분은 복원사업을 위한 토지인도 및 건물 명도가 주목적으로, 원주민들의 부동산을 명도할 의무를 갖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는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비대체적 작위의무'여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제1차 행정대집행 계고장에 일부 문제가 발견돼 이를 보완해 다시 계고장을 발송한 만큼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최경호기자 choice@

남은 음식 재사용 일제점검

광주시 24~28일

광주시는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음식점의 남은 음식 재사용 실태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지도·점검 대상지역은 동구 금남로와 서구 금호지구, 남구 주월동, 북구 용봉동(전남대 인근), 광산구 송정동 등 5개 권역이며, 시·구 위생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이 참여하는 5개 점검반이 투입된다.

점검내용은 ▲남은 음식 재사용 금지 홍보물 부착 여부 ▲영업주(종사자) 남은 음식 사용 가능 식재료 기준인지 여부 ▲제도 시행에 따른 영업장 운영방법 및 변경사항 여부 등이다.

시는 조사결과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